말씀 **김삼환** 원로목사

시대를 살리는 믿음

(마 8:10)

살아계셔서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80회에 걸쳐서 3월과 9월 특별새벽집회를 이끌어 오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홍우상가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25명이 모여서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을(많을 때 27명, 적을 때 23명) 이처럼 부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 감사뿐입니다.

금년에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촌 구석구석의 온 인류가 세계적인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동서남북의 모든 길이 막혀 있던 위기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큰 위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행 27:22-26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 유라굴로 광풍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풍랑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행 27:18-19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욘 1:4-5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모든 국가의 위기, 모든 인류 역사의 위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좇아 나아간 탕자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교회의 품을 떠나서 탕자의 길로 걸어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 107:10-14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건너편의 로마를 보았고, 그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죄악의 도시, 저 우상의 나라, 저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는 거만한 대제국 로마에 기독교의 계절이 오고, 성령의 역사로 로마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과 기도가 가득한 로마를 지중해 풍랑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 그 꿈, 그 확신은 확실하였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경제, 건강, 사업, 가족 간에 어려운 풍랑이 있습니까? 환상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영적 부흥은 언제나 위기에서, 고난, 역경, 환난, 전쟁, 기근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먼저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미국 등 이 모든 나라는 위기를 영적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 14:15-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위기는 어느 때입니까? 국가, 개인, 가정, 교회의 위기는 번영하고 발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평안할 때, 부유할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출세하고 인기 있고 돈과 명예가 있고 건강할 때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그 권력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부유함을 누리며 천천만만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주거 문화, 자동차, 의료, 교육 환경으로 영적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물려준 신앙, 황무지 같은 흑암의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헌신, 희생, 순교, 고난이 이 민족을 세계 위에 우뚝 세웠지만 우리는 그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예수님 잘 믿는 나라로,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로, 오직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특별새벽집회를 영적 기회로 삼아 새 시대를 준비하고 나아가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내일의 가나안의 새 시대가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